

## 군산시 청년들, 청년 취·창업지원 협력체계 강화

군산시 14개 유관기관 참여...AI 역량 강화·면접비 지원 등 실질적 연계 확대

군산시 청년플(센터장 김진아)이 지역 청년들의 취·창업 지원 강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손잡고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군산시 청년플은 26일 '2026년 청년센터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고, 지역 내 청년 정책 및 고용지원 기관들과 지원사업 연계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시청 인구대응담당관을 비롯해 군산고용복지+센터, 군산상공회의소, 국립군산대학교 취업지원실, 군산기계공업고등학교 등 지역 내 청년·취업지원 유관기관 14곳의 실무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2026년 군산시 청년플 주요 사업 ▲2026년 군산시 청년정책 방향 ▲청년·취업지원 유관기관 간 상호 협력·연계 방안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공유했다. 특히 올해는 미래 산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AI 활용 기초교육부터 AI-POT 자격증 취득, 군산 전략산업과 연계한 실무 교육까지 아우르는 단계별 AI 역량 강화 체계 구축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이와 함께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면접비 지원사업과 구직 청년 대상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공동 운영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인 연계 방안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군산시 관계자는 "청년이 지역에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 청년플에서 추진하는 각종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이나 SNS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군산시 청년플로 하면 된다.

이영임 기자

## 진안군,진안 양수발전소 유치 위해 전북 정치·행정 한뜻

국회의원·도지사·군수 최초 공동서명, 공동과제 공식화

진안군이 지역의 핵심 현안인 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해 전북 정치권과 행정이 함께 하는 협력 체계를 이끌어 내며 본격 행보에 나섰다.

지자체 주도 사업에 대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전북 지역 국회의원, 군수가 공동으로 서명에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전북특별자치도가 하나의 목소리로 힘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진안군은 양수발전소 유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물론 국가 에너지 정책과의 연계성 등을 설명하며 전북 차원의 공감대 형성에 주력해 왔으며, 그 결과 전북특별자치도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뜻을 함께해 공동서명이 성사됐다.

이번 공동서명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사를 비롯해 정동영, 이춘석, 안호영, 한병도, 이원택, 이성운, 박희승 등 전북 지역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해 힘을 보탰다. 이는 특정 인물 중심이 아닌 전북 정치권 전체가 지역 현안을 공동과제로 인식하고 연대에 나섰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공동결의문에는 ▲국가 에너지 전환 정책의 핵심 인프라 구축 ▲지방소멸 대응 및 지역 균형발전 실현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등 양수발전소 건설의 정책적 필요성이 담겼다.

아울러 이번 결의서는 소관 중앙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공식 전달됐

며, 사업의 신속한 검토와 추진을 건의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정치·행정이 공동 명의로 중앙정부에 입장을 전달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진안군 관계자는 "양수발전소 유치는 진안군을 넘어 전북 전체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 과제"라며 "전북특별자치도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함께 뜻을 모아 공동서명으로 이어졌다는 것은 전북이 하나의 팀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와 행정이 함께 책임을 공유하는 협력 기반이 마련된 만큼,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 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서주 기자

## 전주시, 21개국 주한외국공관장, 전주매력 흠뻑!

전주음식·스포츠관광·UCLG 세계문화정상회의 개최 홍보 및 한옥마을 탐방



세계 21개 국가를 대표하는 주한 외국공관장들이 대한민국 문화도시 전주를 찾아 전주만의 매력에 흠뻑 빠졌다. 전주시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26일부터 27일까지 21개 국가 주한대사를 대상으로 '주한 외국공관장 초청 행사'를 진행했다.

전주시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이번 전주 방문이 전통신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역사도시 전주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고, 대외 협력 기반을 한층 공고히 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와 미주, 유럽, 아프리카 등 21개국가를 대표하는 32명의 주한 대사 내외가 지방 도시인 전주를 찾은 것은 이례적인 규모로 평가를 받고 있다.

시는 이번 행사에서 유네스코 음식정의도시로서 지역 특색을 살린 전주의 대표 음식문화를 선보이고, 스포츠정책과 세계문화정상회의 등 전주의

미래 도시비전을 소개함으로써 다채로운 멋과 맛이 공존하는 전주의 매력을 알렸다.

또한 전주를 찾은 주한 외국공관장들은 전주한옥마을과 경계전, 국립무형유산원 등을 방문해 천년 역사와 풍부한 문화유산을 직접 체험하며 전주의 도시 경쟁력을 현장에서 확인했다.

시는 참여한 외국공관장들에게 2027년 세계문화정상회의 개최 계획을 공유하며 글로벌 문화도시로서의 비전을 설명하고, 세계 각국의 관심과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세계지방정부연합(UCLG)이 주관하는 세계문화정상회의는 문화와 도시 발전을 연계한 국제적 의제를 다루는 대표적인 국제회의로, 전 세계 도시 정상과 문화·정책 전문가들이 모여 문화의 역할과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 전략을 논의하는 글로벌 정책 협의체다.

시는 오는 2027년 회의 개최를 통해

유네스코 음식정의도시이자 전통문화 자원이 집적된 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글로벌 문화도시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전통 한지 제작 과정을 직접 체험하며 한지의 우수성과 산업적 확장 가능성에 대해 궁정적인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번 초청행사에 참석한 각국 공관장들은 전주의 문화적 자산과 시민 참여 기반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향후 협력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다.

시는 이번 초청행사를 통해 한옥마을과 전주 음식, 한지, 공예 등 지역 고유 자원의 경쟁력을 주한대사들에게 직접 선보임으로써 전주관광 브랜드 가치를 한층 높인 것은 물론, 전주 관광·경제 교류의 중심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국제적 공감대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번 주한외국공관장 초청 행사는 전주의 고유한 문화자원과 산업 역량을 세계에 알리고, 지속가능한 국제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는 26일 운동목 전주시 부시장을 단장으로 '전주시 공공기관 유치 추진단'의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금융·신산업 △문화·체육·관광 △도시·건설 △농생명·식품의 4개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전주시의 유치 당위성을 확보하고, 중점 유치 대상 기관과 이전 대상 부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신승민 기자

## 광주광역시 무주택 한부모가족 주거안정을 돕는다

광주광역시는 자립 의지가 있는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한부모 주거 지원사업' 입주자 46가구를 모집한다.

'한부모가족 주거 지원사업'은 한부모가족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임대주택 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지역 내 임대주택 46호가 확보돼 있으며, 자립 의지가 있는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입주자로 선정된 가구에는 평균 750만원 내외의 보증금을 지원한다.

단 자립 의지 강화를 위해 임대료와 관리비(월 평균 17만원), 입주보증금(70만원)은 자부담해야 한다.

계약 기간은 2년 단위이며, 입주 연장 심사를 거쳐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 중장기 생활안정이 가능하다.

주거공간 제공과 함께 자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도 병행한다.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한 상담과 물품 지원을 제공하며,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취업 훈련·학습 비용 지원, 자녀 양육 공백 때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 등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연중 상시 모집하고 있으나, 1회차 집중 신청 기간은 오는 3월6일까지다. 입주자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입주를 결정하며, 심사는 3월 13일 오전 10시 진행할 예정이다. 입주 상담 및 신청은 광주동구가족센터로 하

면 된다. 홍보물에 안내된 정보문서(QR 코드)를 통해서도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최경화 국장은 "이번 주거 지원사업을 통해 한부모가족이 주거 불안에서 벗어나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하며 자립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취약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 지원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광역시는 오는 3월1일 오전 10시 시청에서 독립유공자 유족, 광복회원, 각계 기관·단체장,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7주년 3·1절 기념식을 개최한다.

손권일 기자

## 고흥군,지역건축사회와 '재난 피해주택 지원' 협약

신축 시 설계·감리비 50% 이상 감면 혜택 제공한다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균형 팽양산출에서 고흥지역건축사회(이하 건축사회)와 재난 피해주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한 다양한 재해재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재난 피해를 입은 군민의 신속한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관내에서 재해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이 협약에 참여하는 건축사를 통해 주택을 신축할 경우, 설계비와 감리비를 50% 이상 감면해 주는 것이다.

지원 절차는 관내 건축사가 주택 신축 의뢰를 받으면 의뢰인의 재난 피해 대상자 여부를 군에 확인 요청하고, 군은 사전 조사된 피해 대상자 여부를 회신해 비용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주준호 건축사회 회장은 "고흥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재능기부를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며 "피해를 입은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고흥군은 어르신들의 활기찬 모습을 사진으로 남겨 정서적 위로와 자존감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 중인 '우리동네 청춘사진관'을 26일 포두면 자연동마을에서 두 번째로 운영했다고 밝혔다.



군 종합민원실 관계자는 "주택 침수뿐만 아니라 불철 화재 등 다양한 재난 상황에서도 설계·감리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피해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조속한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덕현 기자

## 남원시, 스마트경로당 온택트 콘테스트 결승 마무리



남원시는 26일 '어르신 행복공간 스마트경로당 온택트 콘테스트' 결승전을 개최하고, 경로당 중심의 비대면 여가·소통 프로그램이 현장에서 충분한 참여와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번 결승전은 스마트화상회의 시스템을 기반으로 사회자는 시청 지하 스튜디오, 참가자는 소속 경로당에서 실시간으로 연결해 진행했으며, 쌍교동 경로당(죽향동), 농원마을 경로당(금동), 장항 경로당(장항), 제천 경로당(주생면), 외평여성 경로당(주천면), 진북여성

경로당(보절면) 총 6개의 경로당이 결승전에 참여했다.

또한 결승 참여 경로당이 속한 읍면동의 다른 경로당도 스마트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해 함께 시청하며 응원에 참여해, 경로당 간 '연결'과 '함께 즐김'의 분위기를 더했다.

특히 이번 콘테스트는 예선과 본선 단계부터 예상보다 반응이 매우 뜨거워 현장 분위기가 한층 달아올랐고, 결승전에서도 그 열기가 그대로 이어졌다. 어르신들은 응원전을 별도로 준비해 단체 응원을 펼쳤고, 일부 팀은 단체로 웃

을 맞춰 입고 참여하는 등 '대화'라기보다 '다함께 즐기는 축제'같은 장면을 만들었다.

이날 진행은 남원시 홍보대사 개그맨 김범준이 맡아 현장 몰입도를 높였으며, 결승전 시작 전에는 예선본선의 순간들을 담은 스케치 영상을 함께 보며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렸다. 또한 우승을 거머쥔 주생면 제천경로당 어르신들은 "처음 경험하는 행사라 긴장을 했었는데, 막상 해보니 너무 즐거웠고, 다 같이 웃고 응원하며 좋은 추억을 만들었다"며 소감을 전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온택트 콘테스트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재미있고 현장 분위기도 뜨거웠다"라며 앞으로 어르신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꾸준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르신들께서 너무나도 즐겁게 참여해 주셔서 덕분에 저도 많이 웃고 간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남원시는 26일 시청 회의실에서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 영유아 보육계획과 수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신승민 기자

## 무주군,발굴로 되살아난 대차리의 시간, 사진전 개최해

무주군은 삼국시대 무주의 역사와 문화를 조명하는 사진전 "발굴로 되살아난 대차리의 시간"을 오는 3월 29일까지 무주상상비디오 지하 1층 생활문화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2월 3일부터 시작된 이번 전시회는 무주의 산과 땅,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사진'으로 공유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2018년 무주 대차리 고분군 발굴조사 당시 촬영한 사진을 통해 발굴 현장과 고분 내부, 출토 당시의 상황, 그리고 출토 유물 등 오랜 시간의 흔적들을 함께 소개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정교하게 축조된 석곽묘의 구조를 한눈에 볼 수 있으며

'뿔다리 긴 목 항아리', '뿔다리 점서', '짧은 목 항아리', '푸깁' 등의 토기류와 '철기 유물', '금동 귀걸이' 등 무주지역 삼국시대 고분 문화와 생활상이 담긴 유물을 감상할 수 있다.

이동훈 무주군청 태권문화과장은 "대차리의 시간은 과거 유물을 발굴해 현재의 기록으로 되살린 역사를 생생하게 재현한 전시"라며 "18점의 사진 속에 담긴 무주의 옛 시간이 지역 문화유산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역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무주 대차리 고분군은 삼국시대 백제·신라·가야의 경계가 맞닿아 있던 무주군(무주읍 대차리 차산마을 인

근에 위치한 고분 유적으로, 산줄기 정상부와 사면부를 따라 석곽묘(돌덧널 무덤)가 분포하는 것이 특징이다.

무주 대차리 고분군은 전북지역 단일 고분 유적 가운데 가장 많은 신라 토기가 출토된 곳으로, 2018년 발굴조사를 통해 그 실체가 본격적으로 확인되면서 신라가 호남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는 데 결정적 계기가 된 사진 과정과 무주지역의 당시 역사적 위상을 보여주는 매우 가치 있는 학술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무주군은 '2026년도 무주군 차법근 축구교실에 참가할 지역 내 초등학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김서주 기자